

# 도서관정보학의 탄생과 미래

楼井宣隆 著

복명희, 신은희 共譯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대학원〉

본고는 일본의 도서관정보대학에서 발간하고 있는 도서관정보학연구보고 제 10권 1호에 게재된 「도서관정보학의 탄생과 미래」를 번역한 것이다. 그 내용은 선진국의 도서관학교의 명칭과 미국, 캐나다의 도서관학교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정보학이 탄생하게된 역사적인 필연성과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정보학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도서관·정보학이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譯者註〉

## 1. 머리말

“도서관정보학”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Information Science”의 번역어이지만, 원어와 번역어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어권의 사전류에는 그 정의가 없다. 왜냐하면 “science”는 “science” 또는 “學”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Information science”의 실태가 다양한 것처럼,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 학문 그 자체가 지닌 철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에 있어서는 대학이 도태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도서관 학교가 폐교되고 있기 때문에 “Information Science”가 갖고 있어야 할 철학을 쉽게 결정하기란 어렵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과 캐나다의 도서관학교의 현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학교명에 “Library & Information Science”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캐나다 양국의 특이한 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미국·캐나다에서 “Library & Information Science”가 탄생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또한 탄생의 필연성을 명확히 하며, 도서관정보학의 정의와, 장래의 도서관정보학이 가야할 적절한 방향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 2. 미국·캐나다 도서관학교의 현황

### 2.1 도서관 학교의 명칭 변천

최근 미국도서관협회(ALA)가 인정한 미국, 캐나다 양국의 도서관 학교명에 “Library & Information Science”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였으나, 1960년대에서 1990년까지 5년마다, 학교명칭의 핵심이 되는 용어의 변천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미국·캐나다 도서관 학교명칭의 변천

연도	학교수	Library (%)	Libr. & Info. (%)	Infor. (%)	기타 (%)
1960	32	32(100.0)			
1965	36	35( 97.2)	1( 2.8)		
1970	50	45( 90.0)	5(10.0)		
1975	62	51( 82.3)	10(16.1)	1(1.6)	
1980	68	43( 63.2)	23(33.8)	1(1.5)	1(1.5)
1985	64	16( 25.0)	42(65.6)	2(3.1)	4(6.2)
1990	60	8( 13.3)	46(76.7)	2(3.3)	4(6.7)

또한 참고로, 1990년의 “Library & Information”를 사용하고 있는 46개교의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 순서로 알아보면 표 2와 같다.

〈표 2〉 “Library & Information”의 내역

학 교 명	학 교 수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23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14
Library & Information Sciences	3
Information & Library Studies	2
Library & Information Management	1
Library & Information Service	1
Information & Library Science	1
de Bibliothéconomie et des Science de l'Information	1

이상의 표에서 보면, 미국·캐나다의 도서관 학교의 명칭이 “Library Science”에서 “Library & Information Science”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도서관학이 발달한 기타 선진국의 도서관 학교명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 2.2 선진국의 도서관 학교의 명칭

1985년 “IFLA Publication 32”에 의하면, 영국, 서독, 프랑스 3개국의 도서관학교의 명칭은 표 3과 같다.

〈표 3〉 선진국의 도서관학교의 명칭

영 국	학 교 수
Librarianship	9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4
Library Studies	1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tudies	1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1
Information Science	1
서 독	
Bibliothekswesen	3
Bibliotheks	2
Bibliotheks und Dokumentationswesen	2
Medizinische Dokumentation—Assistenten	2
Bibliothekswissenschaft	1
Bibliothekar	1
Bibliothekswissenschaft und Bibliothekerausbildung	1
Buchwesen	1
Bibliothekswesen,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1
Archiv-und Bibliothekswesen	1
Informationswissenschaft	1
프랑스	
l'Information	10
l'Information et de la Documentation Scientifiques	2
des Bibliothèques	1
de Bibliothécaires—Documentalistes	1
des Chartes	1
d'Archivistique et de Documentation	1
Documentation	1
en Information et Documentation	1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1

위의 표에서 보면, 영국 도서관 학교의 명칭에 “Library & Information Studies”를 사용하는 곳이 전체의 약 30%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많은 것은 아니며 “Studies”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거의 “도서관정보학”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Library & Information Science”라는 명칭은 미국과 캐나다의 독자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3 미국·캐나다의 도서관 학교 교과과정의 변천  
먼저 1972년부터 1985년까지의, 미국·캐나다 양국의 전국 도서관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도서관학계 과목과 정보학계 과목의 비율의 변천을, 각 학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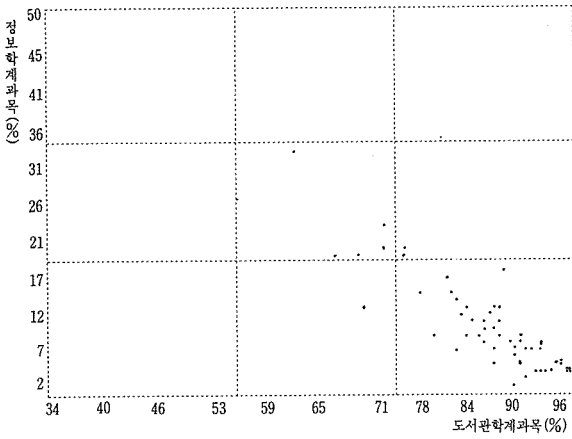
로 조사하고, 여기에 1990년의 조사결과와 함께, 각 학교의 그 변천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2, 3, 4 참조).

각 점으로 표시한 것이, 각 학교의 교과과정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로축은 도서관학계 과목을, 세로축은 정보학계 과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과목에 대한 비율을 %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도서관학계, 정보학계, 공통계)과목의 상대적인 가중치는 다음의 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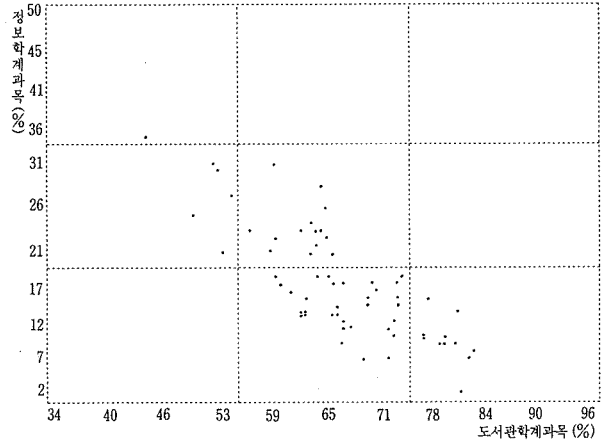
카테고리별 수업 과목의 가중치=

$$\frac{\text{카테고리별 과목 담당교수의 총수}}{\text{전과목 담당교수의 총수}} \times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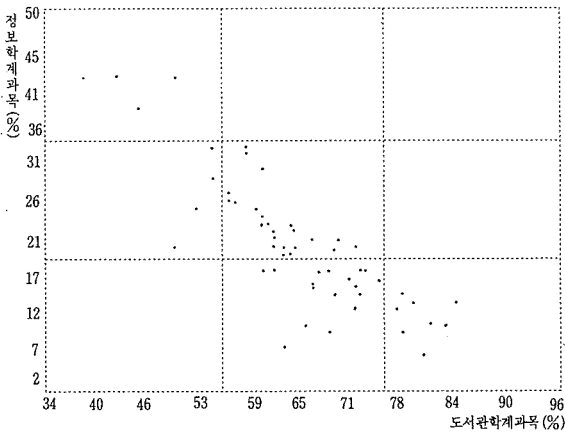
〈그림 1〉 1972년도 도서관학교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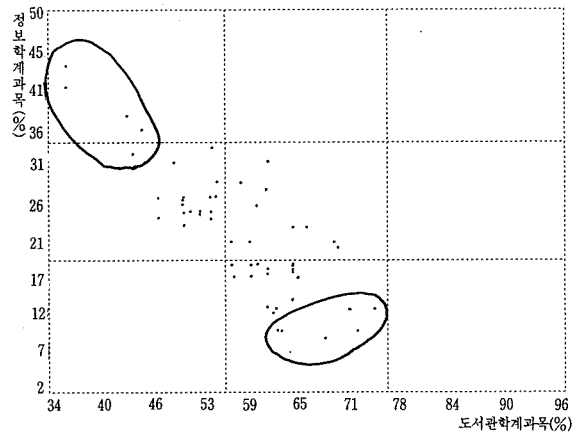
〈그림 2〉 1981년도 도서관학교 분포도



〈그림 3〉 1985년도 도서관학교 분포도



〈그림 4〉 1990년도 도서관학교 분포도



위의 그림에서 미국·캐나다 양국 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은, 종래의 도서관학계 과목에 정보학계 과목을 추가하여, 양자의 비율이 해가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균등화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2.4 도서관학을 지향하는 학교와 정보학을 지향하는 학교의 교과과정의 특징

최근 1990년도의 분포도에서, 도서관학계 과목을 가장 많이 수업하고 있는 학교는 6개교, 즉 정보학

계 과목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도서관학계 과목을 수업하는 학교와, 반대로 현시점에서, 가장 정보학계 과목을 강화하고 있는 학교 6개교, 즉 정보학계 과목과 도서관학계 과목을 균등하게 수업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이것을 가칭 “도서관학 지향 학교군”과 “정보학 지향 학교군”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교과과정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참고로 각 6개교의 정보학계 과목(정)에 대한, 도서관학계 과목(도) 및 공통과목(공)의 비율은 표 4와 같다(표 4 참조).

〈표 4〉 도서관학 지향학교와 정보학 지향학교에 있어서  
도서관학계 과목과 정보학계 과목 및 공통과목의 비율

도서관학 지향학교 학 교 명	과 목		
	도	정	공
Univ. of Mississippi	7.8	1	3.6
Wayne State Univ.	7.6	1	2.8
Univ. of S. Florida	6.6	1	3.9
Pratt Institute	6.3	1	3.8
Univ. of Kentucky	5.7	1	1.6
Univ. of N. Carol. Greens.	5.4	1	1.8

---

정보학 지향학교 학 교 명	과 목		
	도	정	공
Univ. of Pittsburgh	0.7	1	0.6
Drexel Univ.	0.8	1	0.7
Univ. of Hawai	1.0	1	0.7
Univ. of W. Ontario	1.1	1	0.8
Univ. of N. Carolina	1.2	1	0.7
Syracuse Univ.	1.2	1	0.9

이상의 도서관학 지향학교군과 정보학 지향학교군에 있어서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JELIS : 1989/90)」의 과목 분류에 따라 각 과목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그 가중치가 큰 것만을 살펴보면, 표 5, 6과 같으며 그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식과 같다.

수업과목 Cij의 가중치=Ci를 수업하는 교수의 총수  $(\sum_j Cij)$   
 다만 Cij는 ,i과목을 j학교가 수업하는 교수의 총수

〈표 5〉 도서관학을 지향하는 학교의 주요과목(가중치가 큰 것만)

- (1) 도서관학 관계
1. Audience : Young Adults(26)
  2. School Media Centers / Libraries(26)
  3. Reference or Information Services(22)
  4. Audience : Children(21)
  - 기 타
  5. Descriptive Cataloging(16)
  6. Academic Groups Libraries(16)

7. Library Science / Library Services(15)
  8. Audio Visual(15)
  9. Classification(14)
  10. Technical Services(14)
- 

(2) 정보학 관계

가중치가 큰것은 없음 (상대적으로 중요한 과목)

1. Information Science / Information Services(8)
  2. Automation and Computerization(8)
  3. Online Searching / Computerized Information Retrieval(8)
- 

(3) 공통과목

1. Management or Administration(23)  
기 타
  2.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13)
- 

〈표 6〉 정보학을 지향하는 학교의 주요과목(가중치가 큰 것만)

---

(1) 정보학 관계

1. Information Science / Information Services(44)
  2. Information Systems : Analysis, Design of Evaluation(35)
  3. Information System / Information(27)
  4. Automation and Computerization(23)
  5. Online Searching / Computerized Information Retrieval(23)
  6.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cl. telecommunications)(19)  
기 타
  7. Cognitive Processes(17)
  8. Computer Programming(17)
  9. Bibliometrics(15)
  10. Database Design or Management(13)
  11. Artificial intelligence / Expert Systems(11)
  12. Information Industry (for profit)(10)
- 

(2) 도서관학 관계

1. Library Science / Library Services(25)
  2. Reference or Information Services(25)  
기 타
  3. Academic Groups libraries(17)
  4. School Media Centers / Libraries(14)
-

(3) 공통 과목

1. Management or Administration(29)
2. Research Methods(26)
3. Reprography(22)  
기 타
4. Networking of Cooperation(14)
5. Marketing of Planning(7)

위의 표에서 도서관학을 지향하는 학교에는, 아동 및 학교도서관과 경영관리 관련과목을 중시하고 있는데 비해서, 정보학을 지향하고 있는 학교는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커뮤니케이션 기술, 경영관리에 관련된 과목을 중시하고 있으며, 또한 인공지

능, 전문가 시스템 등 최신기술에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 학군의 과목을 조직론계, 자료론계, 경영론계, 기타의 4종류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표 7〉 양 학군의 조직론계, 자료론계, 경영론계, 기타 과목의 비율

	조직론계	자료론계	경영론계	기 타
도서관학 지향학교	8%	15%	40%	37%
정보학 지향학교	10%	17%	31%	41%

〈표 7〉에서 보면 도서관학 지향학교나 정보학 지향학교도 모두 경영론계 과목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정보학 지향 학교쪽이 보다 경영론계 과목을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현재 도서관학 지향학교는 아동 및 학교도서관에서의 관리운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보학 지향학교는 학술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의 정보관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도서관정보학을 탄생시킨 2대 조류

미국의 도서관정보학은 특이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탄생시킨 2가지 조류로는, 미국에서의 도서관학의 조류와 정보학의 조류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2가지 조류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보고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3.1 미국 도서관학(Library Science)의 조류

3.1.1 듀이의 도서관 학교

미국의 도서관 사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2가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Dewey가 1887년 1월, 콜럼비아 대학에 최초의 도서관 학교를 설립 하여, 그 명칭을 “School of Library Economy”라고 한 것이다. 도서관학 교육을 대학교육 속에 포함시킨 의의는 깊으나, 미국 도서관학 사상을 예측하는 의미에서는 “Library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용어는 19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 사용된 용어이며, 도서관 업무를 시간, 노력, 경비의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지칭한 말이었다. 따라서 이명칭은, 대중교육을 위하여 도서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용자인

미국시민에게 필요한 도서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Dewey는, 유럽대륙의 도서관 학교가 중시해 왔던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고전에 대한 문헌학적(philological)인 지향을 무시 또는 포기하고, 미국 특유의 도서관학 교육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 3.1.2 윌리엄슨의 개혁

두 번째 사건은 1923년에 Charles. C. Williamson이 “Traning for Library Service”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도서관학교의 본연의 자세를 비판하였으며, 그 결과 시카고 대학에 “Graduate Library School”을 창설되었다. Williamson이 제안한 내용은 (1)대학의 학부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것 (2)종합대학의 일부 또는 독립적인 전문학교에서 교육할 것 (3)1년간은 기초, 2년째는 실습을 포함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었다.

이것은 듀이가 지향했던 도서관학교에서의 교육이, 저차원적인 직업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던 것을 비판하여 도서관직원의 교육은, 대학 교육을 통하여 보다 학문적인 전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시카고 대학에 박사과정을 포함한 “Graduate Library School”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학교의 교육철학은, 도서관학을 순수하게 이론적인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실용과학(Practical Science)으로서 그 학문의 목표를 지식규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따라서 20세기 중반까지의 미국의 도서관학은, Dewey와 Williamson과의 개혁적인 노력을 통하여, 도서관 기능의 개발, 특히 도서관의 자료 제공 서비스의 충실에 그 목표를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도서관학은, 도서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학문으로서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 3.2 미국 도큐멘테이션의 조류

도서관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였으나, 19세기 후반 벨기에에서 일어난 도큐멘테이션 운동이, 미국에 전파된 후의 일은 비교적 알려진 부분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 전달된 과정과 그후의 미국에서의 발전으로 나누어서 그 경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 3.2.1 도큐멘테이션 운동의 탄생

국제적인 도큐멘테이션 운동의 발전은, 그 공적이며 모두 벨기에의 Henri LaFontaine(1854-1943)와 Paul Otlet(1868-1944)에게 있다. 그것은 “Documentation”을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 모든 종류, 모든 문헌을 수집, 분류, 유통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여, 그 활동을 국제적인 운동으로까지 확대하였던 것은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재판의 변호사로서 명성을 갖고 있던 La-Fontaine가 친구인 젊은 Otlet을 만났던 것은 Edmond Picard의 법률사무소였다고 한다.

Picard는 1891년에 사회정치학회를 창설하여 벨기에의 법률전서를 LaFontaine등을 기용해서 편집을 시켜, 그 전서를 편찬할 때에 Picard는, “모든 사실, 모든 관찰, 나아가서는 사실과 관찰을 거듭하여, 그 후에 일반적인 진리를 추론하는 것은 F. Bacon에 의해서 공식화된 것이지만, 이것은 법철학이나 사회학에서도 동일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서지에 포괄적으로 집약된 문헌을, 과학자가 실험데이터를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하면 다음의 새로운 진리를 추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를 진화시킨다고 Picard는 생각하였다.

당시에는 C. Darwin의 종의 기원(1859)이 발표되어, 사회의 진화가 기대된 시대였으며 다양한 사회진화론이 주창되고 있었다. Picard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Otlet이 Picard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는 특히 Alfred Fouillee의 “이념은 힘이다”라는 철학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즉, Otlet 등은 Fouillee의 철학에서 지식의 종합화(사회학 문헌의 포괄적인 서지 작성)야말로 실질적인 사회진화의 견인력을 생성한다는 사



상을 배웠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하에서 시작된 Otlet 등의 도큐멘테이션 운동은, 안으로는 서지의 양적, 질적인 충실을 꾀하고, 밖으로는 국제화를 꾀하였다. Otlet 등은 서지의 분류배열을 위하여 듀이의 십진 분류법(DDC)을 참고로 하여, 국제십진분류법(UDC, 1905년)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서지기사의 배열과 검색을 용이하게 하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국 의회도서관, 대영박물관 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과 목록카드를 교환하여 서지기사의 양적인 증강을 꾀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서지의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IIB(국제서지협회)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국제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IIB의 활동을 통해서 서지의 국제적인 수집과 유통을 꾀하려고 했던 Otlet과 LaFontaine는, 여러 국가의 정치적인 정책이 문헌수집과 유통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을 통감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학술정보의 유통에는 국제협력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LaFontaine은 국제적인 시야가 넓었고 국가간의 교류에 따른 장애에 대해서 한층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여러 국가가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 국제사회의 과학적, 도덕적, 지적,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UIA(국제협력연합: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를 설립하고 그 운동에 정열을 쏟았다. 그 결과 그 공로에 따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LaFontaine등의 운동은 국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14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그들의 도큐멘테이션 운동은 좌절되었으나 그 후 도큐멘테이션 운동은 국제 평화를 바라는 LA(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의 수립이라고 하는 평화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국제연맹의 설립(1919년)후, 도큐멘테이션 운동의 추이에서 본다면, 그들의 운동은 벨기에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재정적인 곤란에 빠져 Otlet 등의 손에서 떠

났다.

더구나 그들의 품었던 국제 협력의 이념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국가주의를 진흥시킨 결과가 되었다. 즉, 각국에서 도큐멘테이션의 국가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예를 들면 NIDER(네델란드 도큐멘테이션 분류협회, 1921년) Aslib(영국 전문도서관 정보국협회, 1924년), ICIC(프랑스 지적협력 국제위원회, 1924), BSIS(영국 국제 서지협회, 1927년), CD(스위스 도큐멘테이션 위원회, 1930년) 그리고 뒤늦게 ADI(미국 도큐멘테이션 협회, 1937년) 등이 이어서 설립되었다.

이 ADI가 후에 미국에 있어서 정보학의 중심이 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NIDER의 Donker Duyvis가 IIB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연과학 분야의 도큐멘테이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곧 IIB의 명칭을 IID(국제 도큐멘테이션 협회, 1931년)라고 개칭하고 그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현재의 FID(국제 도큐멘테이션 연맹, 1938년)의 전신이다. 이상이 유럽대륙을 무대로 해서 학술정보의 유통을 의도하였던 서지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도큐멘테이션 운동이 미국에까지 전파된 경위이다.

### 3.2.2 도큐멘테이션에서 정보학으로의 추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도큐멘테이션 운동이 미국에 전파될 무렵 미국에서는 과학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Science Service협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 협회는 후에 ADI(미국 도큐멘테이션 협회, 1937년), ASIS(미국 정보학회, 1968년)로 되었다.

따라서 ADI/ASIS의 역사적인 변천을 사상사 측면에서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인 미국 도큐멘테이션의 조류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Angela Dierking Remond의 "ASIS—History(1988년)"에 기초하여 ASIS의 발전을, 사상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연대순으로 추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1926년—과학을 대중에게 계몽할 목적을 갖고 있던 Science Service 협회의 Watson

Davis와 Edwin Slosson박사가 도큐멘테이션 활동에 있어서 마이크로 필름의 유용성을 지적하였다.

- 1934년—Bibliofilm Service협회(비영리 단체)가 설립되어, 과학기사의 마이크로필름화와 사진복사에 의한 유통과 도서상호대차 작업의 삭감을 도모하였다.
- 1936년—또한 Auxiliary Publication Service협회가 설립되어 과학자의 잡지에 게재되기 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중요논문이나 발행의 보장이 없는 연구논문의 마이크로 필름 또는 마이크로 프린트를 통한 유통을 도모하였다.
- 1937년—W. Davis의 지휘에 따라 전국의 협회, 학회, 도서관, 관련기관의 대표자가 소집되어 학술연구 분야에 있어서 도큐멘테이션의 촉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상술한 양 협회를 흡수하여 ADI (American Documentaion Institute)가 설립되었다.
- 1940-1949년(제2차 세계대전)  
협회는 모든 잡지의 마이크로 필름화를 꾀하여, 그 기간에 입수 곤란한 과학잡지를 도서관이나 개인에게 서비스 하였다. Oriental Science Literature Service부를 창설하고 「Far Eastern Service Bulletin」을 발행, 「Catalog of Auxiliary Publication in Microfilms and Photoprints」(1946년 초판)를 발행, FID(1947년)에 가입하였다.
- 1950-1959년  
미국 의회 도서관장 Luther H. Evans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1950)ALA의 「Journal of Documentary Reproduction」(초판, 1937년)을 계승하여 협회지인 American Documentation(초

판, 1950년 계간)을 발행하였다. ADI의 활동을 목록작업과 분류작업의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는 서지통정의 연구와 출판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그 중심이었다.

• 1960-1967년

이 무렵부터 「Information Storage & Retrieval Science」라는 용어가 「American Documentaion」지에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Scholarship Fund for Information Science」(정보학 장려 기금)이 Hans Peter Luhn의 공로를 기념하여 설립되고, 공로상이 작고한 Luhn에게 수여되었다(1964년). 「Working Symposium on Education for Information Science」(1965)를 후원하고 정보학 교육에 진력을 다하였다.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초판, 1965)의 발행을 통해서 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의 현상에 대한 새로운 공헌에 대한 총괄적 제공을 시작하였다. 또한 「Documentation Abstracts」를 발행(1966)하여, ACS(미국 화학회), SLA(전문 도서관 협회)의 지원을 받았다. ADI에는 다음과 같은 8개 전문부문을 설치하였다(1966).

- (1) Automated Language Processing
- (2) Behanioral and Social Science Information System
- (3) Biological and Chemical Information System
- (4) Classification Research
- (5) Educ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 (6) Information Analysis Ceneters
- (7) Library Automation and

Networks

(8) Reprographic Technology

• 1968-1973년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ADI 회원의 관심과 행동에 모든분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Institute」라고 하는 용어도 전문 학회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2가지 이유로 인하여 1968년에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ASIS)라고 개칭하고, 그 기관을 “과학적, 학문적,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하여, 정보와 그 전달에 관계된 지식의 창조, 조직화, 유통 및 응용에 기여하는 비영리 전문 협회로, 회원은 정보가 연구의 목적 내지는 목적달성의 수단이 되는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권유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도서관, 정보 센터의 작업과 작업개선에 사용되는 기술 및 도서관 직원, 정보 과학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문헌의 수집, 처리를 하는 ERIC/CLIS(교육자원 정보센터/도서관정보학 Clearing house)를 미국교육국의 지원으로 운영하였다(1970-1973).

「American Documentation」지를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JASIS)라고 명칭을 변경하였다(1969).

• 1974-1983년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관한 백악관 회의를 후원하고, ALA, SLA, 미국과학 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FIPS(미국 정보처리 학회 연합)등의 참여하에서

- (1) 국가자원으로서의 정보
- (2) 국가 정보 정책의 필요성
- (3) 도서관 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

학기술의 적용

- (4) 지방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
- (5) 공공-사기업과의 접점
- (6) 정보에의 액세스(access)비용
- (7) 국제적인 활동
- (8) 정보학의 연구 등을 토의하였다.

• 오늘날(1988년)의 ASIS

현재의 전형적인 ASIS의 회원은 도서관 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15년간의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부인들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국에서는, 당초 도큐멘테이션은 과학의 대중화를 의도하는 활동에 따라, 연구 문헌의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유통을 꾀한다고 하는 이른바 마이크로 필름 도큐멘테이션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 후에 학술과 연구 분야에서 도큐멘테이션의 촉진과 발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목록 및 분류를 중심으로 하는 서지통정과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과학문헌의 유통기술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ADI의 관심은 학술정보의 축적과 검색기술을 비롯한 정보관리기술로 중심이 옮겨졌으며, 종래의 도큐멘테이션으로는 회원의 관심과 행동의 전문분야를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큐멘테이션”에서 “정보학”으로 이행되어 관심이 “문헌”에서 “정보”로 옮겨졌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는 도큐멘테이션이 바로 정보학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Information Science”란 상술한 문헌을 빌리면 과학적, 기술적, 교육적인 정보와 그 전달에 관한 지식의 창조, 조직화, 유통 및 응용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이 “Information Science”를 위에서 기술한 정의를 갖는 학문, 특히 “정보학”이라고 번역하여 이른바 정보과학과는 구별하겠다.

앞서 미국의 도서관학이, 실용과학으로서 그 학문의 목표를 도서관 기능의 개발, 특히 도서관의 자료

제공기능(도서관 서비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것을 알아 보았으나, 미국에서의 도큐멘테이션도 명칭은 정보학으로 바뀌었으나, 과학적 학술적 정보의 유통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서관학이나 정보학 모두 정보 서비스라는 과학으로서 상호보완하여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양자는 통합할 필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상징적인 현상이 오늘날의 ASIS의 전형적인 회원이 15년간이나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도서관학 석사라고 하는 점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 4. 도서관정보학을 탄생시킨 사회적 배경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보완적으로 통합하여 정보서비스라는 학문으로서 탄생하기에는 몇가지 사회적인 배경이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1945년에서 1980년까지의 시간에 따라 컴퓨터의 설계사상, 미국에서의 중요한 도서관 관계의 프로젝트, 도서관의 컴퓨터화, 서지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변천을 그림으로 그려 보면 그와 같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점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보는 국가적, 세계적,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재산

전에는 도서가 인류의 문화적 재산이라고 하여 그 축적과 이용을 위해 도서관이 탄생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종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매체로 정보가 기록되고 그 정보가 인류의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의 대상이 “도서”라는 차원에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차원으로 옮겨짐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도 정보 서비스로 옮겨질 필요가 생겼다.

##### (2) 신기술의 발달

종래의 도서관 활동과 도큐멘테이션 활동을 통하여 개발 되어왔던 기술이 전자기술을 기

초로 하는 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이제까지 불가능 하였던 도서관정보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정보의 축적, 검색, 제공이라는 서비스 기능은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서 컴퓨터를 비롯한 신기술은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각각 포함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융합, 발전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기계가독형목록(MARC)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다.

##### (3) 도서관의 네트워크화에 의한 도서관 사상의 변혁

컴퓨터가 제3세대에서 제4세대로 옮겨짐에 따라 통신망의 구축이 가능 하게되어, 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상호간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OCLC, RLIN, WLN이라는 서지공공사업(Bibliographic Utilities)을 매개로 지역과, 지방, 전국적인 차원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합쳐서 수백개(500이상)나 구축되게 되었다. 이것은 도서관정보서비스의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 도서관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서관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도서관이라고 부른다면 도서관 네트워크야 말로 그 명칭에 어울리게 “도서관 네트워크”를 도서관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상적인 변혁이 이루어졌다.

##### (4) 도서관기술과 정보기술과의 제휴와 융합

(예) 콩코던스(Concordance)에서 KWIC색인으로 컴퓨터가 제2세대로 옮겨갈 무렵, IBM에 있던 Hans Peter Luhn이 논문의 제목 가운데에서 키워드에 의한 자동색인, 이른바 KWIC색인의 작성에 성공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일이 그 뒤의 자동초록, 자동번역과 같은 Computational Linguistics로 발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

졌던 일이다.

그러나 KWIC색인을 창조하려고 했던 발상은 도서관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어구색인이라고 부르는 성서의 콩코던스에 있었다.

본래 Concordance의 어원은 라틴어의 Concordantiae(단수는 Concordantia)이며 조화나 일치라는 의미였다. 그러면 성서 어구색인은 왜 조화라든가 일치를 의미하는 Concordance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중세 유럽사회에서의 종교적인 논쟁에는 항상, 성서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 성서의 기술이 논리의 근거가 되었다. 성서는 구약성서 39권, 신약성서 27권 합계 66권의 텍스트로 구성된 지식우주이다. 따라서 때때로 상반되는 문구가 나온다.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 성서안에서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종합적으로 “사랑”의 참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13세기 무렵부터 중요한 용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찾아내어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텍스트명과 장, 절)을 한줄로 하여 그것을 키워드의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어구색인을 만드는 것이 고안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콩코던스이다. 그러면 왜 Concordantiae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성서는 모두 신의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키워드로 모여 있는 문장들을 전부 모순없이 조화 또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되고 있는 것의 집합으로서 Concordantiae라고 명명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러한 일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문헌들 중에서 어떤 특정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 즉, 정보를 얻기위해 그 정보를 분석적이고 또한 체계적으로 입수하여 통합화가 가능한 기술(색인)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색인적인 발상이, 유럽학문의 특징이다. 유감스럽게 불교경전에는

색인이 없어, 동양의 학문에는 색인적인 발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Luhn은 정말로 이러한 색인적 발상을 계승하는 환경 속에서 어구 색인의 컴퓨터화를 착상하였다. 같은 일이 Shepard's Citation에서 Citation Index을 고안했던 Eugene Garfield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 5. 도서관 정보학의 정의에 대하여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Library Science”와 “Information Science”가 합쳐서 새로운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가 된 필연성을 지적하여 왔는데, 매우 이상한 것은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는 사람들의 입에 늘 오르내리는 문장으로도 자주 쓰여지고 있지만 그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의에 대해서 알아 보자 한다.

### 5.1 고유명사인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가 출현하게 된 환경

영어로 된 문헌을 읽을때 Library and Information이라는 용어에 이어서 -manager, -network, -plans, -research, -service 등의 용어를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는 용어도 자주 출현한다. 그러나 예를들면 권위가 있는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의 제14권 (Allen Kent, Harold Lancour and Jay E. Daily ed. Marcel Dekker, 1975)이나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ALA, 1983)에는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의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인 사전류에도 없다.

또한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LISA : Library Association, 1969년-)가 「Library Science Abstracts」(LSA)에서 지명을 변경했을 때에도,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JELIS : Associ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1984-)가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JEL : Association of American Library School)에서 지명을 변경했을 때에도, 이 정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Association of American Library School」이 「Associ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으로 학회명을 개칭했던 때에, 그 학회지 JEL, 23(4), 1983에 “명칭안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짧은 문장안에서 개칭 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1) 거대하게 급속도로 발전을 계속하는 중대한 기술적 진보가 정보전문직 전반에 확산되어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따라서 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으로서,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책임에서 학회명을 개칭하며, 3) 또한 학술잡지로서 학회지명도 도서관 정보학교육지(JELIC)에 필연적으로 개명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상의 예는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고 하는 용어가 출현하게 된 환경을 설명해주는 예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용어의 출현이 정보사회의 발전과 신기술의 영향으로, 필연적으로 그 목표와 목적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도서관학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보학교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 일을 2장에서 제시했던 최근의 미국·캐나다의 도서관 정보학의 교육경향을 고찰해 보면, 종전의 미국·캐나다에서의 도서관의 서비스와 운영이 정보요구에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와 그것에 상응하는 경영 관리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게 되어, 그 때문에 개혁이 행해져 왔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는 용어의 출현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캐나다에 있어서 “도서관학”이 항상 그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 본연의 서비스 업무를 추구해 왔던 결과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5.2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의 정의

위에서 기술한 용어의 정의는, 권위있는 사전이나, 용어사전, 잡지에 없다는 것을 지적해 왔는데, 그러면 인정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된 학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인용의 근거로는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ALA, 1983)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1) Library Science : 이용자사회의 정보수요와 요구에 즉시 부응하기 위해 기록 정보의 선택, 수집, 조직화, 및 이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19세기 후반이후, 겨우 도서관학이 인정받게 된 무렵에는 “Librarianship” “Library Economy”가 영국에서 도서관학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졌고, 후에 미국에서도 사용되어지게 되었지만,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Library Science”가 사용되게 되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범위에서만 전문직이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것을 과학자적인 오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에 따른 것이며, 과학에 속하는 많은 학문을 필요에 따라 흡수하는 다분야적(Multi-disciplinary)인 경향이 생겨났다. 또한 이 정의에 있어서 선택, 수집, 조직화, 이용이라는 서비스사이클의 기반이 도서관이 아닌 기록정보라고 정의했던 것은 명확하게 이용자 사회의 수요와 요구를 염두에 둔 것이다.

2) Information Science : 모든 형태의 정보의 창조,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3) Informatics : 정보의 조직화, 축적, 검색 및 유통에 관한 기술 응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연구.

ALA의 용어집은 정보학에 관련되는 정의로서 이상 3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ASIS(미국정보학회)는 1968년에 ADI(미국 도큐멘테이션 협회)로부터 개칭할 때에 Information Science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Information Science는 정보의 생성, 수집, 조

직화, 축적, 검색, 유통, 변환 및 이용에 관한것과 특히 이러한 영역에서의 최신기술의 응용을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종래의 정의에서는 정의 방법의 유형에 따라 (1) 「빨간 것은 이것이다.」라고 했던 직접적인 정의 (2) 피정의사항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정의하는 분석정의가 있고, 또한 후자에는 외연적인 정의(extensional)와 내연적인 정의(intensional)가 있는데, ALA나 ASIS 모두 내연적인 정의를 채택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고찰을 감안하여 분석적이고도 내연적인 정의를 채택 한다고 하면, 미국, 캐나다에서의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는 1)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2) 정보서비스의 중심인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3) 도서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학문이라는 피정의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질책을 각오하고 미국, 캐나다의 전통적인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 정의해 보면,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s a discipline which studies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information,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modern technologies to the generation, collection, organization, storage retrieval, dissemination, transformation, and use of information in all its forms in meeting the information demands and needs of a community of users.」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란 이용자사회의 정보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형태의 정보의 생산, 수집, 조직화, 축적, 검색, 유통, 변환 및 정보이용에 대한 최신기술의 응용뿐만 아니라 정보의 구조와 속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UCLA의 도서관 정보학교의 R. Hayes는 정보학이 이론을 창조하고, 도서관학은 그 이론에 입각하여 이것을 응용하는 학문이라는 설명을 한 바 있다. 그의 생각은 이론과 응용을 구별하는 것과 같이 도

서관학과 정보학을 구분하여, 그 양자의 역할을 분담시키려는 의도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 추측이 정확하다면 도서관학 이야말로 정보학의 이론을 이용측면에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의미로, 미국·캐나다 도서관정보학에 대해서 필자가 지금까지 고찰한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기술은 과학보다도 깊다」라고 하는 것이 자각되어 과학에서 기술로의 방향성이 중시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점에서 예리한 고찰은 정의와는 별도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Hayes가 뜻하는 것은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 학문으로서 구축하고 싶다는(또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나) 필사적인 의욕과 노력이 넘쳐 있었음을 언급해 두고 싶다.

또한 참고로 일본의 도서관정보대학(Universi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도서관 정보학을 「정보의 생산에서 수집, 처리 가공, 유통, 검색 등을 통하여 이용에 이르는 과정을 문화, 역사, 사회,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해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과 기능에 관해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필자가 정의한 미국·캐나다의 “Library and Information”과 일본 도서관정보대학의 “도서관정보학”과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자가 이용자 사회를 염두에 두고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 후자는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문화적, 기술적 해명을 기반으로,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지향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미국에서 도서관 학교의 폐쇄가 논의되고 있을때, 도서관정보학을 자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학문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학문상의 철학이 미국, 캐나다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 6. 금후의 도서관 정보학

미국과 캐나다의 도서관 교육이 Library Economy에서 Library Science로 되고, 또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 이르는 그 자취를 알아보았는데, 그 기반에는 항상 도서관 직원이나 정보 전문가가 그 존재 이유를 묻는 이용자 서비스의 유효성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캐나다의 도서관 정보학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이를 예측 할만한 약간의 징조나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1) 정보학 중심의 교육이 증가

제2장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쳐서 90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도서관학계 과목에 대한 정보학계 과목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도서관학계 과목쪽이 많아, 도서관정보학으로서는 두 계열의 과목 비율이 정당하게 반영되기까지 앞으로 당분간은 정보학계 과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정보 자원 관리(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로의 전환

도서관 학교의 교육 과정의 학과목을 조직론계, 자료론계, 경영론계와 기타로 구분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영론계의 과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향은 최근 20년간의 미국과 캐나다의 도서관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이며, 언뜻보면 듀이의 사상인 “Library Economy”로 회귀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정보사회로 발전하려는 요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보 자원관리(IRM)가 미국의 도서관 정보학교 가운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경영론을 중시한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와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도서관정보학의 강력한 의사표현의 하나이다.

원래, 정보자원관리란 정보를 자원으로 생각하여, 다른 자원(인간, 사물)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야마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그것은 최근 30년간의 정보 시스템의 급격한 성장이 주위에 여러가지 시스템에 그릇된 영향을 미쳐, 다음과 같은 시스템 발전을 방해하는 중대한 내부 모순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 (1) 정보 처리 비용, 특히 인건비의 상승
- (2) 개발의 정체와 시스템 엔지니어의 부족
- (3)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보수의 증가와 시스템의 열악
- (4) 정보 시스템 활용의 한계
- (5)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
- (6) 고도 정보화 사회와 기업내부 통제의 재확립해야 한다는 모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자원 관리의 필요성은 정보학계 전반의 광범위한 직업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반드시 도서관정보학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도서관 시스템의 기계화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한차례 완성되었던 미국의 도서관정보 활동분야에서도 같은 모순이 발생되고 있으며, 더구나 도서관정보학을 배우는 정보 전문가가,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미국 정보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일부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자원관리가 도서관정보학의 존재가 의문시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답변에 대한 돌파구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 예가 먼저 소개했던 Syracuse대학의 정보학교(School of Information Studies)에서의 정보자원관리 과정(석사수준)이다.